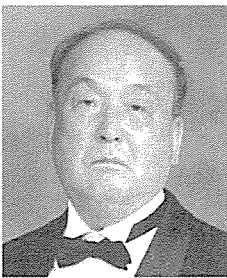


우리 기술사의 세계시장 진출

1995년 발족한 WTO(세계무역기구)는 기술사를 비롯한 고도의 서비스제공 인력을 국가 상호간에 인정하며 인력교류 또한 장려한다. WTO의 기술사 상호 승인은 현재 진행중인데 북미, 유럽에 이어 APEC은 올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도 APEC 회원국으로 APEC 엔지니어의 일원이 되어 시대흐름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許 埴

〈동남아태평양공학연합회 부회장/
대한화학기술회장〉

1948년에 성립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상품의 국가간 이동 다시말하면, 무역을 쉽게 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 1967년에 한국이

가입한 이 GATT는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즉 세계무역기구가 생겨남으로써 그 막을 내렸는데, WTO에는 GATT체제시에는 없었던 세계 무역분쟁조정기능과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는 기능이 있다. 그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다음 세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WTO선 기술사인정 상호교류, APEC블럭선 10월부터 시행

첫째, WTO에는 상품만이 아닌 Service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있다. (General Agreement of Trade in service) 둘째, GATT체제에서는 엄격하지 않았던 규정 적용이 개발도상국에게까지 예외없이 적용된다. 셋째, 협정위반시 대책변화이다. 협정위반으로 제소되면 전 가맹국에 의해 검토된다.

WTO는 이민 및 비숙련노동자의 국가간 이동은 규제 하지만 사람이 제공하는 고도의 Service는 자유화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를 비롯한 고도의 Service제공 인력은 국가상호간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며, 인력교류 또한 장려되는 것이다. 명실 공히 국제적인 개방 및 경쟁시대에 과학기술분야도 예외는 아니므로 이제 이와 같은 시대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겠다. WTO의 '기술사 상호승인'은 현재 착실히 진행중이며 이미 북미의 NAFTA Engineer, 유럽의 Eur Engineer가 발족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APEC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APEC Engineer의 일원이 되어 시대흐름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참된 발전은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참여하여 참된 정보교류와 국가간의 우정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을 것이며 우선 제도가 비슷한 일본과 '기술사의 상호 인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WTO는 각국 기술자의 기술자격기준을 동등·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3블럭(APEC, EU, NAFTA)이 각각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APEC은 98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APEC, EU, NAFTA가 규정하고 상호 인정하는 기술사 수준은 다음과 같다.

블럭 규정사항	APEC	EU	NAFTA
명 칭	APEC Engr.	Eur-Engr.	NAFTA Engr.
기술수준	국가인정의 대졸 이후 7년 이상 경력	FEANI 인정 대졸 후 2년 직업훈련, 2년 이상 실무경력	대졸 후 기술사 보-4년 실무경 력후 기술사
시행일정	'98. 10월	'98	'97

※ APEC Engineer의 구체적 자격(상호 승인할 수 있는 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

- ① 인정된 대학 Engineering과정을 수료한 자.
- ② 자립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각국 기관이 인정하는 자.
- ③ 대졸 후 최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이중 2년간은 중요 Engr. 업무의 책임자였을 것)
- ④ 지속적인 전문능력 개발을 만족할 수 있는 레벨을 유지하고 있을 것. ㉞